



東山の 創學精神

南相協

(學校法人 東山育英會 理事長)

1930년대는 실로 우리 民族의 死活에 관한 重大한 時期라고 생각된다. 日帝 侵略以後 接踵하는 壓迫에 民族 全體의 運命이 風前燈火格이었다.

1931年 滿洲事變에 이어 1937年 中日戰爭이 일어나고 韓半島를 手中에 넣은 日帝는 滿洲를 뒤엎고 中國大陸에까지 그 魔手를 뻗어 所謂 大東亞 共榮圈의 기치 아래 內鮮一體를 強要하고 日語 常用으로 왜곡된 日人 歷史를 強要하여 어린 靑少年들은 天照大神을 開國神으로, 神武天皇을 國祖로 認識시키는 무서운 文化政策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었다. 創氏改名을 통한 完全 日人化 政策이 날로 심각해져서 실로 精神 自體를 改造하는 民族抹殺政策이 本格的 段階에 들어서는 시기였으니 뜻있는 志士나 烈士는 말할 나위도 없고, 普通の 識者層에서도 歎息과 한숨소리가 높게 일던 當時, 民族의 將來를 念慮하고 걱정하며 뜻을 같이 하는 몇 분이 民族自覺의 一環으로 開校를 서두른 것이 1938年이었다. 이제 歲月이 흘러흘러 今年이 50週年이 되었으니 實로 感慨無量하고 가슴벅찬 일이다.

그동안 헤일 수 없는 日帝下 어려움 속에서도 뿌리를 박고 解放 後 混亂의 와중에도 곳곳이 지켜 社會 各界各層에 2만 8천여 명의 卒業生이 輩出되어 地域과 國家의 간성으로 활약하고 있음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돌이켜 어제를 回顧하고 오늘의 現實을 살피며 來日을 내다보는 教育의 意味는 매우 重要하다 생각된다. 民主主義 精神은 人間의 尊嚴性을 알고 自由에 따르는 責任이 強調되고 있다. 知는 智慧를 낳는다. 그렇기에 소크라테스는 無知함을 규탄했다. 人間의 尊嚴性은 知를 통하여 實現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東山 出身은 智慧로와야 하겠다. 自由란 언제나 相對的인 自由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限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어떠한 行爲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價値判斷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때그때 形便대로 멋대로 判斷해서 行爲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東山人은 東山人으로서의 價値 基準을 가지고 매진해야 한다.

誠實함은 東山의 價値尺度이다. 日帝의 民族抹殺政策에 正面으로 抗拒하여 民族魂을 살리려는 開校精神은 獨立精神이요 自主精神이요 民主精神이다. 오늘에 이 精神을 高揚하여 來日을 향한 우리 東山의 無窮한 發展과 未來를 향한 드높은 氣像을 期待하면서 『東山五十年史』發刊을 自祝하고 이를 위하여 協力을 아끼지 않은 同門 및 關係者에게 깊은 謝意를 표한다.

教育에 몸을 던져

南相協

1988年은 우리 學校가 開校 五十週年을 맞이한 해입니다. 어언 半世紀를 보내고나니 感懷 또한 無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日帝의 植民地治下의 酷毒함을 견디어 왔으며, 6·25 戰爭으로 인하여 國土가 荒廢化되는 호된 經驗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學校의 지난 五十年은 실로, 가혹한 植民治下와 悲劇的인 6·25를 겪으며 이를 克服해 온 우리 民族과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回顧해보면 開校 當時인 1938年 무렵은 日帝의 虐政이 극에 달하였던 時期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想像조차 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當時 日帝는 民族抹殺政策의 一環으로 우리의 말과 글을 抹殺하려고 했습니다. 官廳은 勿論이고 學校에서조차 우리말과 우리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고, 우리 韓民族의 姓氏와 이름도 日本式으로 改名, 改姓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컨대 日帝의 教育方針은 徹頭徹尾 그들의 植民政策에 順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韓國人이 期待할 수 있는 教育機關은 역시 韓國人이 經營하는 學校였습니다. 이 時期의 仁川에 있었던 教育機關을 살펴보면 현재의 國民學校格인 普通學校가 2學校 있었고 中等教育機關은 仁川中學校, 仁川商業學校, 仁川女子高等學校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當時 이 學校들은 日本人 子女들을 위한 教育機關이었기에 우리의 子女들에게 民族精神을 심어줄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같은 어려운 時期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 子女를 教育하기 위해서는 學校를 設立해야 한다는 覺醒과 아울러, 沒落되어가는 韓民族의 矜持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靑年들의 教育을 통해서 民族魂을 되살려야겠다는 信念으로 이 東山學校를 세우자는 運動이 始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38年 7月 14日, 드디어 仁川 中區 栗木洞에서 開講하고 다시 1939年 2月, 現 東山學校 위치에 校地 3,000餘 坪을 확보, 6學級 校舍를 新築하여 3年制 仁川商業專修學校를 設立한 것입니다.

그 當時에 學校設立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尊脚은 學校에 있는 記念碑에도 남아 있

읍니다만 다시 떠올려 보면, 金允福, 金鍾燮, 金世玩, 劉君星, 李興善翁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나 完全한 學校法에 遵하는 學校認可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財團法人을 設立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財團法人의 認可를 얻기 위해서는 莫大한 財政이 必要했습니다. 이 때에 仁川의 甲富인 崔承宇翁이 學校設立의 趣旨와 設立精神에 欣然히 贊同하여 巨金を 喜捨, 1941年 4月 1日, 財團法人 仁川實業學院을 設立하게 된 것입니다(그 당시 崔翁이 喜捨한 物件은 沿革에 상세히 記載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새로운 設立者로 崔承宇翁이 第1代 理事長으로 就任하였습니다.

上記한 바와 같은 精神으로 本校가 設立되었기에 나는 이 精神을 學校建立精神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마침 내가 學校長으로 在職中인 1968年에 30週年 記念의 해를 맞이하여 學校設立精神을 기리는 記念碑를 세우게 되어 그 碑文을 내가 쓰게 되었습니다. 參考로 記念碑文의 內容을 옮겨 씁니다.

“여기 일본 통치 때부터 이 학교를 세우고 도우신 님들은 민족혼을 되찾는 것만이 겨레를 사랑하는 길인 줄 아셨노라.

우리도 이 얼을 거울삼아 겨레의 햇불이 되자.”

우리 學校의 校歌도 이러한 精神을 바탕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時代에 이 學校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全國에 私立學校도 몇 개 있었으나 대개는 宗教關係學校가 大部分이고 民間人이 세운 學校는 몇몇 學校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學校가 民族的 要求에 부응하는 새 教育정신을 根本精神으로 建立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6·25를 당해 避難하였다가 다시 돌아오니 上陸作戰의 激戰도 있었고 해서 仁川은 完全히 廢墟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多幸한 것은 學校建物만은 無事하였고 友邦軍인 美軍이 兵舍로 使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新興國民學校의 教室 一部를 빌리고 나머지 不足한 教室은 假教室을 지어 開校하였고 이렇게 근 2年間을 고생한 후에야 다시 本校舍로 돌아와 授業을 始作하였습니다.

그 이듬해부터는 校舍新築을 서둘러 長期計劃을 세워 漸進的으로 實踐에 옮겼습니다(이 무렵 나는 財團으로부터 常務理事格으로 財團 일을 執行하고 財團에 報告, 決議를 얻으라는 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戰爭 後라 物資不足과 資金難으로 腐心하던 중 AFAK의 美軍援助物資를 교섭 끝에 얻은 것을 계기로 本館, 高等學校校舍, 講堂, 科

學館을 6,7年間に 걸쳐 完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급한 것이 運動場의 擴張이었고 校地擴張 또한 절실하였습니다. 마침 既存 校地에 隣接한 土地가 市有地와 國有地였기에 이 토지를 拂下받기 위한 交渉을 始作하여 약 2年後 만여 坪을 拂下받았고 또 小作權 問題 등을 해결하여 整地를 始作하니 뒤이은 資金難 등으로 遲延되어 약 2年後에야 完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造景 作業이었습니다. 現在 學校 周邊에 있는 樹木은 대부분 江華에서 當時 移植한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解結하기 어려운 問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學校 增設을 위해서는 財團의 財産評價基準에 達해야 합니다. 그래서 財團이 開發한 鹽田 以外에 鹽田에 隣接한 雜種地 5만여 坪을 買入하고 이어 淸平 江邊에서 加平 虎鳴里에 이르는 林野山 183町步 (54만9천여 坪)를 買入하여 落葉松造林을 하는 등 財團의 財産確保에 힘써 今일에 이르렀습니다. 그후 다시 教室 增築의 必要가 생겼을 때, 이 落葉松 賣却 代金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일에 同參하여 오는 동안에도 平坦하지만은 않았습니다. 財團의 財政問題가 如意치 못하였을 때에 理事 몇 分の 發意로 財團을 他에 讓渡하자는 企圖도 있었으나 나머지 理事들과 함께 특히, 崔昌壽 理事의 뛰어난 沮止 信念에 힘입어 財團 讓渡 企圖를 完全히 霧散시켜 위기를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讓渡를 主張하던 理事들은 다시 教育委員會에 事實無根한 人身投書 등으로 財團을 混亂으로 몰아 넣으려 하였으나 事必歸正으로 無事히 學校를 保護할 수 있었습니다.

事實 財團의 不動産은 充分하였으나 갑작스런 退職教師들의 退職金과 또한 教師들의 退職年金制度가 發足되기 이전부터 근무해 오던 教師들의 退職金 支給 등 現金이 급히 必要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當時 理事長으로 있던 金燦三 理事가 급한 退職金을 解決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事情은 年輪이 많은 學校일수록 더욱 심하였고 다른 學校들도 역시 이런 曲折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東山 五十年史는 실로 民族의 受難과 發展의 歷史와 흡사하였으며, 어려운 日帝下에서 용케도 純粹한 民間人들이 힘을 모아 우리 東山學校를 建立할 수 있었던 根因은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잊혀져 가는 民族魂을 되살리기 위해선 자라는 學生들의 가슴속에 民族精神을 鼓吹시킬 수 있는 學校를 設立해야 한다는 確固不動한 信念이 있었기에 可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東山學校에 同參하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 40여년간 이 設立精

神을 받들어 學校發展을 위해 일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여러 理事長任들과 理事, 任員들, 또한 歷代 學校長, 教師, 庶務職 여러분들의 協助와 努力에 의해 現在와 같은 자랑스런 우리 東山學校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그 모든 분들께 眞情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랜 50餘 星霜을 보내는 동안 수많은 卒業生을 輩出, 그들이 社會 根幹에서 뛰어난 活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오직 感謝할 따름이며 앞으로 이러한 훌륭한 傳統을 이어 받아 '雄飛하는 東山' '民族의 거름으로서의 東山人'이 되길 懇切히 바라는 바입니다.

(현 재단 이사장)